

"꿈은깨여지고"

꿈은눈을 떴다,
그윽한 幽霧에서。

노래하든 종달이,
도망쳐 나타나고。

지난날 봄타령하든
금잔디 받은아니다。

塔은 문허졌다,
붉은 마음의塔이——

손톱으로색인 大理石塔이——
하로저녁暴風에 餘地없이도,

오—荒廢의쑥밭.
눈물과 목메임이여!

꿈은 깨여졌다,
塔은 문허졌다。

一九三五 十月 二十七日、36. 7. 27 改作

꿈은 깨어지고

꿈은 눈을 떴다.
그윽한 유무에서

노래하던 종달이
도망쳐 날아나고

지난날 봄타령하던
금잔디 받은 아니다

탑은 무너졌다
붉은 마음의 탑이——

손톱으로 새긴 대리석 탑이——
하루 저녁 폭풍에 여지없이도

오—황폐의 쑥밭
눈물과 목메임이여!

꿈은 깨어졌다.
탑은 무너졌다.

1935. 10. 27. (1936. 7. 27 개작)